

4) 투장골(投葬谷)

마을 앞의 봉우리에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묘(墓)를 썼는데 그 후로 마을에는 사람, 가축, 재물 피해가 극심하여 동민이 의논 끝에 그 묘를 이장한 후부터 마을이 평온하였다 한다.

제7절 길곡리(吉谷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금장산(金藏山) 지맥의 능선이 기성면 이평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동편 능선이 영양군과 경계며, 남쪽은 온정면 선구리와 접하고 북쪽은 갈면리와 인접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광대골(廣大谷)

광대사(廣大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광대골(廣大谷)이라 전한다.

2) 길마(吉馬)

조선 초기에 말을 타고 지나가던 선비가 말을 매어두고 용변(用便)을 보고 오니 말이 없어졌기에 찾아보니 말이 이 마을에 누워있으므로 이곳 마을의 산세(山勢)가 말의 안장과 흡사하다 하여 길마(吉馬)라 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안쪽에 있는 마을을 내길마(內吉馬),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외길마(外吉馬)라 하였다고 전한다.

3) 대밭마(竹田洞)

김씨(金氏)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개척한 뒤에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정착하여 살았는데 마을 주위에 대밭이 많다 하여 대밭마(竹田洞)라 하였다고 전한다.

4) 삼단(三檀)·사달(沙達)

이 마을은 1400년경에 구씨(具氏), 고씨(高氏), 안씨(安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세 사람이 함께 성황당을 모셨으므로 이곳을 삼단(三檀)이라 하였는데 후에 사달(沙達)이라 하였다 한다.

5) 오봉골(五峯谷)

옛날에 오봉사(五峯寺)라는 절이 있었던 골이라 하여 이 골을 오봉골이라 한다. 지금도 절터 흔적이 남아있고 골 입구에 암자(庵子)가 있다.

3. 가구 분포

총 51세대가 거주하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特徵)

1) 광대골 석탑

광대사가 있었던 절터에 작은 석탑(石塔)이 있었는데 1950년경에 없어졌다. 이를 애석하게 여긴 이 고장 출신 김성우 교사가 경주 불국사에서 이 석탑을 찾아 불영사에 갔다 두었다 고도 전한다.

2) 성황당(城隍堂)

이 마을은 자연부락마다 성황당이 있는데 3개 부락에 있는 성황당은 당집이 있고 2개 부락은 큰 나무와 큰 바위를 성황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내길마에 있는 성황당은 그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되었고, 그 외 4곳의 성황당은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목욕 재계하고 동리의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는 나을제사를 지낸다. 특히 광대골 성황당은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하단은 보통의 성황제의 예에 따라 제사를 올리고 있으나 상단은 제사 때 어물(魚物)을 일절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제8절 덕신1리(德新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마을 뒷산이 덕신2리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남쪽은 현종산이 바라보이며 500m 거리에 망양휴게소가 있으며, 기성면 망양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북쪽은 오산1리와 인접해있다.